

구주성탄

1999년 12월25일

- ◆ 평택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 ◆ 평택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 ◆ 평택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 ◆ 하나님! 평택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VISION 2000

- 성전대지를 주옵소서.
-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 제자훈련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중보기도학교
말씀사랑학교
- 20구역을 허락하옵소서.
- 200명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 단독 선교사를 파송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신·앙·칼·람

희망과 사랑으로..

오·늘·을·사·는·지·혜

전도서 1:9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사람들은 '새 천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열리면 무언가 놀랍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와 흥분은 많은 실망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현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고독자(孤獨者)로서 있다면 전도서 2:20, 이따라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는 실패와 절망자의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수고와 땀, 정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며 해석(解釋)입니다.

1999년 12월25일, 오늘은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Incanation)의 영광이 임하신 복된 축일(祝日)입니다. 시대는 2000년의 시간과 세월을 흘러 보냈지만 여전히 성탄(聖誕)의 광경,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자리하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궁궐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부한 자와 온갖 실력자들은 고대광실 화려한 집에서 수 없는 환영(歡迎)과 기쁨 속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와 본체(本體)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는가? 생각합니다. 겸손과 은유로 오신 성탄, 십자가를 향해 오신 생명 사랑을 이루시려고 우리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여한연 목사



●1999년 12월25일, 발행인:여한연 목사/교회설립:1996년 6월23일/주소:450-040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338-4번지, 전화:(0333) 657-9353(교회) 658-0691(목사관/팩스겸용) 휴대폰/011-792-0675. 「마테데스」는 제자라는 헬라어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파내는 평택 사랑의 교회(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남 수원노회 서부시찰 소속) 성탄예배 지(紙)입니다.

예 배 시 간	장소	예 배 시 간	장소
주일낮예배 오전 11:00	본당	청년 대학부 토 오후 7:30	유아실
찬양예배 오후 02:00		중 고등부/학생회 토/5:00주일/9:00	교육관
수요일예배 오후 07:30		유치 유년 초등부 주일/09:00(AM)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05:00	유아실	남녀 제자 훈련 수요/주일에배 후	유아실
조직자모임 수요일예배후	유아실	중보/말씀사랑 수시로 변경	수시로

1.9.9.9 구.주.성.탄.예.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2:14

예배초대	인도자	말씀선포	베들레헴의 별
성서낭독	인도자	기도	설교자
찬송	1장	찬송	94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헌금	다같이
성서교육	교육문/NO-57	봉헌기도	여한연목사
찬송	104장	환영	새신자
예배기도	유창섭장로	성도의교제	교회소식
성경봉독	마태복음2:1-12(신2p)	송영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아가페찬양대	축도	여한연목사

인도 여한연 목사(오전11시)

●2000년 청지기

- 장 로 유창섭 ·여전도사 박숙자
- 안수집사 문택모 이보현 ·권사 한보근 오옥현 동숙자 장명자

서리집사

남자 박명재 강형곤 윤병희 홍철호 김기호 박문기 이충우 김성일 권이택 홍승철 문정환(11명)
 여자 박점덕 김태선 고추자 이경숙 함금영 고정엽 이호자 이순희 박영숙 정규선 백수기 임현숙 홍성단 우순자 홍미애
 백문자 진범옥 홍미옥 김은정 김순희(20명)
 권철 최은순 김영옥 박성숙 조순정(4명)

당회

공동의회

회장 여한연목사 서기 유창섭장로 회장 여한연목사 서기 유창섭장로 회원 본 교회 무흠(無欠) 입교인

제직회

회장 여한연목사 부회장 유창섭장로 서기 권이택집사 회계/문택모집사 이보현집사 홍철호집사.

주일학교

교 장 여한연목사 교육간사 정준용
 영아유치부장 이호자집사 ·교사 백수기 진범옥 임향숙
 유 초등 부장 이보현집사 ·교사 함금영 박영숙 홍성녀 홍성단 홍미애 우숙이 박정현 이치훈
 중 초등 부장 이충우집사 ·교사 김성일 권이택 임현숙 김은정 강봉열 정대성
 청년대학부장 김성일집사

찬양대

아가페찬양대
 대 장 문택모집사 총무 김성일집사 지휘 권이택집사 반주 박정현 부반주 김미혜
 대 원 소프라노/고정엽 박영숙 이순희 진범옥 홍미애 우숙이
 알 토/홍성녀 홍성단 진범옥 김은정 박미현
 테 너/정준영 강봉열 임정섭 베이스/이충우 김성일 박정열 정대성 이치훈

에스더찬양대
 대 장 홍철호집사 총무 박영숙집사
 지휘자 집사 반주 김미혜 부반주 박성숙 박민애
 대 원 고정엽 이호자 이순희 박영숙 홍성녀 백수기 정규선 임현숙 홍성단 우순자
 홍미애 임향숙 진범옥 박성숙

각부(위원회) 조직

부서	부장 및 위원	부서	위원
교육위	이호자 이보현 이충우 김성일 정준용	건축 실행위	장로 안수집사 박명재 이충우 김성일 권이택
선교위	박명재 각 주일학교 부장	DREAM 21	이보현 이충우 김성일 권이택
음악위	권이택 각 찬양대 대장 지휘자	새 가족부	박숙자 홍성녀 임인화 백수기
관리위	윤병희 교회 및 차량	강단 장식	홍성단
식당	이호자 각 구역장	강단 봉사	동숙자 임현숙

구역조직

구역	인도자	구역장	구역원
여자1	박숙자	함금영	정규선 이옥순 고명숙 조순정
2	이호자	동숙자	고추자 김태선 이경숙 조현재
3	홍성녀	홍성단	오옥현 김영옥 백문자 김윤경 김보현 김은희
4	박영숙	이순희	한보근 나순단 진범옥 안영자 오경애 이규례
5	홍미애	우순자	홍미옥 박점덕 김순희 김정혜
6	백수기	임향숙	김은정 권강미 민미자
7	임현숙	고정엽	장명자 김은정 최은순 심옥자 윤영옥
남자1	박명재	문택모	강형곤 김원태 윤병희
2	이보현	홍철호	이충우 박문기 김기호 김용조 김만호
3	김성일	권이택	정병옥 홍승철 문정환 유낙형 장수희 서정환
청년	정대성	이치훈	강봉열 박정열 우숙이 박미현 박정현 이명숙

※1. 임명장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2. 누락될 수 있습니다.

• 1998년 추계 •

민·규·식·목·사

초청 심령부흥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가을...

지난여름에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이 가을, 수확과 열매의 계절을 맞아
전국을 말씀으로 뜨겁게 채우는 민규식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잔치로
정중히 당신을 초대합니다.

·초청인 여한연 목사

일시 1998년 11월2일(월)-11월5일(목)
시간 밤/7:30 낮/10:30 새벽/5:00
문의 0333. 658-0691. 657-9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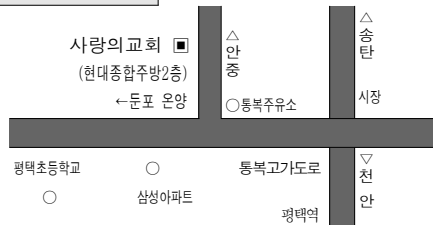


• 강사 민규식목사·성암제일교회 당회장

사랑의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에스라 부흥협의회 회장역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부흥사회 부회장
수원 기독교문화원 운영이사
해의 선교회 강사단장
칠보산 기도원 주강사

• 평택의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 평택 사랑의 교회/450-040 경기도 평택시 통북동 338-4번지.

전화 / (0333) 657-9353(교회) 658-0691(목사관, FAX겸용)



교육간사/임권무. 장로/유창섭. 안수집사/문택모 유성태 이보현. 권사/한보근 오옥현 동숙자 장명자. 제1남/박명제. 2남/한상욱. 3남/권이택. 드보라/이호자. 루디아/김명희. 청년회/임정섭. 중고등부/안용주.

베들레헴의 별

사 60:1-3, 마 2:1-12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천사의 대 합창이 울려 퍼진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그리고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가운데 아직도 신비에 싸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방 박사들이 발견하고 따라온 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별이 무엇이였을까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았습시다만 아직도 확실히 그 별이 어떤 별이 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리 혜성이라고도 하고 超新星이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별의 세계는 원체 신비한 세계여서 사람들의 끝없는 연구와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의 탄생과 별을 연관시켜서 여기에 기록을 남겼을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별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태는 베들레헴의 별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 하였을까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들레헴의 별의 의미를 생각해 보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뜻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별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 혹은 예수님을 별로 상징한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락의 초청을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두고 말한 예언 가운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17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보면 여호와와 종을 가리켜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22:16).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밝은 태양과 같은 빛이라기보다는 별빛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도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19절)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빛이 태양처럼 강렬한 빛으로 나타났다면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빛처럼 어두운 밤하늘에 가냘픈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대낮에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로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별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별처럼 작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로, 별빛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초라하고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 보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선 그가 몸을 빌어 탄생하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보잘것없는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약혼자인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주 가난한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족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자의 집안에 태어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징조를 나타내시지 않았습시다. 뿐만 아니라 타관에서 그것도 마굿간에서 태어나시므로 전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만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자가 태어났다면 온 나라에 공포하고 이 날을 축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는데도 이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의 별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극히 작은 자로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려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섬기려 오셨기에 작은 별처럼, 작은 겨자씨처럼 한 알의 밀 알처럼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사시면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별빛처럼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로서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로 밤하늘의 별처럼 어두운 세상을 향해 겸손하게 빛을 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별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로, 예수님은 별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는 희망의 별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새벽 별은 언제나 희망의 상징이 되어 왔습시다. 그것은 어두운 밤이 곧 걷히고 새벽이 온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도 별이 말해주는 미래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별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해주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나가도록 이끌어 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타락한 세상의 변화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셨습니다. 진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산 소망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이 동방박사들 앞에 빛나므로 기쁨이 되고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이 암흑으로 덮여있는 세계,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베들레헴의 별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로 낙심하지 말고 그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처럼 순례의 길을 떠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에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희망의 별을 좇아 순례하는 자가 될 것을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화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더욱 분명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평화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실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민주화된 국가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므로 많은 갈등과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도덕성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더더욱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버림받은 지역이 되어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날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불의를 몰아내고 파괴된 인간성과 환경을 구원하여 평화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의 순례의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평화와 사랑이 있는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희망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능력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셋째로, 베들레헴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결코 평범한 한 아기의 태어남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탄생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그것은 보일까 말까하는 아주 작은 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별들은 대단히 크고 대단히 밝은 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변광성(變光星)은 직경이 16억km인데 그것은 태양 크기의 1220배나 되는 것입니다. 1963년에 발견된 퀘이사라는 별은 별 가운데 가장 밝고 가장 멀리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은하수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 중에는 태양보다 밝은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퀘이사 한 별이 은하계 전체의 별들을 합친 것보다 200배나 더 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보다 1만 배는 더 밝은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밝은 별이지만 지구에서 1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고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별이어서 우리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발견하고 찾아온 별이 어떤 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 가물가물한 별도 알고 보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별이며 좁쌀알만한 별이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큰 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작은 별처럼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온 인류를 그 안에 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 우주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보존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상은 그는 온 우주를 그안에 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죽으심은 온 인류와 우주의 죽음을 뜻하고, 그의 살으심은 또한 온 인류와 우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겨자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밀 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은 정말 보잘 것 없으며 실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루어질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성탄의 별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 속에 감추어진 무한하게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눈물로 심고 뿌리며 가꾸는 복음의 역사는 마침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성탄에 빛나는 베들레헴의 별은 결코 작은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어두움을 밝힐 하나님의 아들의 빛인 것입니다. 그것은 작게 보이지만 실상은 태양보다 1만배나 더 밝은 빛인 것입니다. 성탄은 이제 우리로 겸손과 봉사와 사랑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힘이며 생명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끝으로, 베들레헴의 별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별은 진리의 빛이며, 어둠에 휩싸이지 않는 의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보잘 것 없는 자로 태어나셨지만 그리고 그는 아무 재물이나 권세를 갖지 못한채 연약한 자로 활동하셨지만 그가 밝힌 진리의 빛을 누구도 꺾을 수 없었고, 누구도 그것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의와 위선과 허위를 밝히 들어내셔서 부끄럽게 만드셨고, 악마의 끈질긴 공격을 진리로 물리치시고 의의 빛을 들어내셨던 것입니다. 그의 빛은 작은 것이었지만 누구도 그 빛을 막을 수 없었고 그 빛에서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빛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길을 잃은 자들의 안내자가 되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어둠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낮에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켭니다.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대낮의 태양의 밝음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하늘의 빛나는 별로 알려졌다는 것은 바로 그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과 맞서서 빛을 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압도되지 말고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믿음과 사랑으로 빛을 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밝히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둠이 짙을수록 진리의 빛은 더욱 초롱초롱 빛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둡기 때문에 이 성탄의 별빛은 더욱 분명하게 빛나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므로 저들의 방향을 멈추게 하고 진리를 찾아 나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성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이 되셨음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도 받은 진리를 증언하고 전하므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불의의 종이 되어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의 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막연하게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별을 따라 온 동방박사들의 그 신앙과 그 소망을 여러분 속에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별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을 배우며, 그가 보여주시는 미래의 약속과 이상을 여러분 속에 희망으로 간직하시고, 작은 것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며 방황하며 갈망하는 현대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광명한 새벽 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어둠을 헤쳐 나가면서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